

2021
12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토론회 개최

02 SPECIAL

2021년 임상병리사협회 결산

04 KAMT NEWS

중앙회 및 시도회,
분과학회 소식

10 SPECIAL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현황 ④
(오세아니아, 아시아)

제467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LG화학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진단검사 역량의 변혁, 환자케어의 향상 한국백크만쿨터주식회사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주)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총일화학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 응고검사의 믿음직한 길라잡이. 스타고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시스맥스코리아(주)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 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이끌 법률개정 절실 보건의료기사의날 토론회서 제시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학문발전을 선도하면서 인력 왜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 용(동의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개발위원은 11월 3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주최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법적 업무 보장 및 역할 확대’를 초점으로 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의 사회, 경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업무 환경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한 임 용 교수는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빠른 인식전환이 필요한데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빠르게 진전되는데 비해 우리 사회의 인식제고는 느리게 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학문적인 위상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의료기사단체별로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되는 인력으로 지정되었다고 상기 시킨 임 용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병행해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인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용 교수는 우리나라 핵심성장 3대 산업군 중 하나로 연간 20조 이상이 투입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는 연구개발, 인허가, 제조혁신 분야에서 나아가 정밀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우선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로 영역을 선점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분석 전 오차는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함으로써 검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가치기반 의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용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국가검진을 시행하는 나라가 몇 안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학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각 보건의료기사 단체별로 잘못된 인력 정보에 대한 왜곡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업무범위 확대' 등 위한 끝없는 노력 대망의 60주년



2021 신축(辛丑)년은 소가 천천히 쟁기로 밭을 갈아 나가는 것처럼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확대와 권익 수호를 위해 진력해오면서, 코로나19로 사회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제59회 종합학술대회를 ON/OFF LINE 병행 하이브리드 대회로 성황



속에 진행한 내실을 이룩한 한 해였다.

2년째 지속된 방역비상 상황으로 불철주야 코로나 파수꾼으로서 국민 보건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으면서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회원들의 여망을 받들어 심장초음파 검사, 감염관리 필수인력 배치 법제화 등 관련 대국회, 대정부 정책 활동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과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제도개선을 위한 부단한 한 해 여정을 뒤돌아보며 협회 60년의 이정표를 세우는 2022년의 새로운 대망을 기대해본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계(視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기사단체들이 의료기사 권익증진 차원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를 배제하고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되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직종별·업무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의료기사 직종 자격, 구체적 업무 등에 따라 업무수행의 장소적 확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 절차·한계에 관해 정책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11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우선 의료기사 업권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해나가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2006년 4월(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2013년 6월(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업권 신장을 위한 단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심초음파 검사 업무주체 논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심장초음파 급여화(9월)에 따른 심초음파 시행주체 적합한 심의와 관련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위원장 김기봉)를 가

동, 임상병리사 권리 보호와 지원 정책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따라 심초음파 관련 임상 현장 근무 실태, 임상병리학과 커리큘럼 및 병리사 국시 초음파영역 반영과 심초음파 검사관련 의료기사법 및 동시행령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해 심초음파 검사 주체로서 임상병리사가 갖는 타당한 권리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심초음파 검사는 임상병리사 업무로 의사 지도, 감독하에 이뤄지되 시행 주체는 병리사가 되어야 한다고 대국회, 대정부 정책 활동을 전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은 임상병리사(226명)들이 심초음파 검사업무를 하는 것에서 보듯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심전도를 바탕으로 심장 주기별 기능 및 혈액학적 평가를 해야 하는 생리학적 기능 검사임을 의학계도 인정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 및 순환생리학 분야의 주요 검사 중 하나로서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에 속하고,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선 '심폐기능에 관한 검사 중 기계를 사용한 검사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상병리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9월부터 심초음파 급여화가 이루어졌으나 복지부는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인데 직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감염관리 전담인력 규정화 노력

'감염관리인력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규칙 46조에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해당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수가 가산 적용)가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검사 업무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실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시하며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필수인력 배치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도록 국회 및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6.30)을 통해 감염관리에 감염관리 수행 인력 배치 기준에서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해당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복지부가 건의의 취지를 반영한 상황에서 협회는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채근하며, 나아가 명확한 배치의무 법제화가 달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태세이다.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출범

임상병리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가는 사업을 중점 수행하는 평가기관인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이 문을 열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국내의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전문 인

철통 방역, 안전 성취 종합학술대회 다시 뛰는 새해 기대

력으로서 임상병리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원대한 목표아래 임상병리교육평가원(약칭 임평원)을 설립해 6월19일 장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김충환 초대원장, 황석연 단장, 안승주 교수협의회장, 중앙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다.

54개 대학별 임상병리학과 커리큘럼의 미니멈 리라이어먼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 제1의 방점을 둔 임평원은 △시험 평가를 통한 인증기준 고도화 △인증 평가 핵심 역량 지표 검토 연구 △학제통합 위한 공동교과 출몰 기반구축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임평원은 임상병리교육인증평가에 관한 자율조직기구로서 공정 타당성이 담보된 임상병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사업과 임상병리사 면허제도 발전, 임상병리사국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평원 사업과 연계한 협회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54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육 수준의 명실상부한 향상 및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차후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평원은 9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당연직, 임명직 이사와 교수협의회장 국시위원장 등 모두 22인을 이사로 임명했으며, 운영위를 열어 위원 선임을 통해 각 위원회를 구성, 기본적인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철통방역-안전 학회' 이정표 세우

10월 16-17일 이틀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면/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철통방역상황을 이룬 가운데 안전하게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온라인은 협회 보수교육 채널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또한 전시 부스도 검사장비 시연 등 사전 녹화 촬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어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많은 회원들이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무려 7,017명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6,980명 교육 이수완료)

제59회 종합학술대회에선 1년 10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진단검사를 통해 국민보건으로 파수꾼으로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진단검사 관련 학문적 열정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특별히 내년 35차 IFBLS 및 창립 60주년 회갑기념 학술대회 리허설 성격을 띤 59회 대회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으로 성가를 드높인 신축진단 K-방역과 관련 다양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법을 다뤘는데, 초대원 대회장은 38년만의 경북 개최에 가슴이 뭉클 하더마 감격했고, 배경택 질병관리청 상황총괄단장은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선봉에 선 K-방역의 주역"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제35차 수원 IFBLS & 60회 종합학술대회 준비 시동

2006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내년 제 35차 IFBLS 및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9월 4일 2022 IFBLS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국내외 양대 학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장인호 협회

장 겸 회장은 16년만에 또다시 35차 IFBLS를 주최 하게되어 가슴벅차며 기원진 조직위원장을 주축으로 역량을 총결집해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기 위원장은 세계 각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진정한 한류를 느끼도록 하면서 60주년을 맞아 임상병리사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FBLS 조직위원회는 11.27 위원회를 열어 제35차 수원 대회를 11개월여 앞두고 사전 준비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2006년 IFBLS 개최(서울 코엑스)와 59년에 이르는 동안 수년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겸하고 있는 종합학술대회 경험을 십분 살리면서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협회 발전과 국위선양의 전기로 삼는다는 각오를 새기고 있다.

4반세기만 협회관 재건축 착수

1997년 12월 30일 서울 성북구 종암로 41번지에 준공된 협회관을 4반세기 25년만에 재건축해 100년을 향한 협회발전의 초석을 쌓는 전기로 삼을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축될 협회관은 지상 6층, 지하 2층(대지면적 331.00㎡, 건축면적 1137.51㎡) 규모로 임원실, 회의실, 사무실은 물론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강당 등을 갖춰 각종 교육, 회의, 행사를 규모별로 치를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역사관과 촬영 스튜디오도 마련하며, 사무실 임대료 협회관의 재무적 가치도 높일 예정이다.

60년사 역사편찬 대장정 돌입

2022년 회갑을 맞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창립부터 60년의 여정을 담은 60년사 편찬의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60년사는 국민건강보건지킴이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과 영광과 고뇌를 함께 호흡하며 발전을 거듭해 온 지난날을 담담하게 되돌아 보면서 새롭게 펼쳐질 100년을 향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0년사 역사편찬위원회는 9월-12월 잇달아 실무위 및 편찬위를 열어 60년사 콘텐츠를 이를 세부 목차를 정하고 자료 취합, 세부 분류를 통한 집필 작업을 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 기능 보완 등 법개정 필요 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토론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행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11월 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홍명욱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강성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장, 손병국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장, 신승일 의료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서 김 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진행된 부분이 없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평가하고 이유 중 하나로 직종별 인력 현황에 대한 집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김 윤 교수는 "법에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계획수립, 실태 조사 및 시스템 구축 중 등으로 준비가 라고 할 수 있다" 며 위원회 만으로 계획, 인력 수급, 활용 및 관리 등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실태조사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 간호사는 공급 부족,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는 상당 부분 공급과잉 상태에 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보건 직종도 이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현황조차 파악할 자료가 없다"고 문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20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며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표를 준비했고, 표 별로 세부 내용 작성을 해서 통계청의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영석 위원은 "공급은 면허로 확인 가능하지만 수요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국민 의료 이용 정도를 적정 수요로 판단할 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무시하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론했다.

지정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인력지원법 제정 목적은 원활한 인력 수급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려면 교육 과정부터 제대로 돼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경우 부족병원이 없다"고 지적

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년째 개정 휴업인 뼈아픈 현실"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복지부가 좀 더 각성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20종의 단체를 방만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종합적으로 3가지였다" 며 "첫째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둘째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뤄지고 일부 직종은 실태조사조차 없으며, 셋째 일부 직종은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수 과목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내용이 없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제기한 정책들은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통계는 매우 중요하게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돼 차후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는가 고민해달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며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것다"고 말했다.



항상 고객 곁에 함께 하는 온라인 고객 지원

- Remote Calibration**
연 2회, 원격 캘리브레이션
- Online Inspection**
연 4회, 온라인 정기 점검
- Remote A/S**
에러 발생 시, 간편하게 받는 원격 A/S
- Online QC**
데이터 신뢰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

Fast, 빠르게
Fresh, 새롭게
Friendly, 가깝게

중앙회소식

재건축추진위원회, 협회관 재건축 위한 시공사 현장설명회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1월 8일(월) 3층 회의실에서 협회관 재건축을 위한 우선협상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안 찬 위원장과 김상원 위원, 조미숙 간사가 참석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우선협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사항 및 자격기준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게 건축 협회관의 도면과 공사 환경사항 등을 제공했다. 현장설명회가 끝난 후 업체와 협회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내년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종합학술대회 후원협력사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1월 24일(수) 명동에 위치한 로얄호텔서울에서 성공적인 제35차 IFBLS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종합학술대회의 개최 및 후원협력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홍보대사인 윤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인호 협회장 겸 대회장과 기원진 IFBLS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후원협력사들에게 제59회 광주 종합학술대회에서의 감사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제35차 IFBLS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다음 제35차 IFBLS 홍보영상 및 제59회 광주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온라인으로 방영됐던 전시부스 영상을 상영했고, 임대진 총무이사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제35차 IFBLS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1.11.01 ~ 11.30

- ▶ 11월 3일 사무국 신규직원 면접
- ▶ 11월 4일 5차 법제위원회 회의
- ▶ 11월 5일 임평원 운영위원회
- ▶ 11월 6일 중소병의원 임금가이드라인 정책간담회
- ▶ 11월 8일 협회관 재건축 현장설명회
- ▶ 11월 11일 467차 상임이사회
- ▶ 11월 13일 학술발전위원회 회의
- ▶ 11월 15일-16일 외부회계 중간감사
- ▶ 11월 19일 IFBLS 수원컨벤션센터 회의
- ▶ 11월 23일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 ▶ 11월 26일 IFBLS 학술위원회 회의
종합학술대회 결산 회의
- ▶ 11월 27일 IFBLS조직위원회 회의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1.11.01 ~ 11.30

- ▶ 11월 1일 국의원 회의 참석
- ▶ 11월 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토론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토론회
- ▶ 11월 4일 해전대학교 MOU체결
- ▶ 11월 9일 조직세포, 세포병리사회 간담회
- ▶ 11월 10일 임상병리사단독법, 평가원 국회간담회
- ▶ 11월 11일 467차 상임이사회
- ▶ 11월 12일 임상미생물학회 이사장 간담회
- ▶ 11월 19일 IFBLS 수원컨벤션센터 회의
- ▶ 11월 24일 협력후원사 간담회
- ▶ 11월 25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의
- ▶ 11월 27일 IFBLS 조직위원회 회의
- ▶ 11월 29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회의
- ▶ 11월 30일 임상병리교육평가원 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마산대학교, 김해대학교, 해전대학교와 산학 협약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마산대학교, 김해대학교(10월 27일) 그리고 해전대학교 (11월4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협회와 대학은 산학협력의 연계적인 발전과 국민 보건으로 질 향상, 미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임상병리사 양성·확보 및 사회 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정부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 △임상병리학 관련 실습 기자재 및 시설 공동 이용 △임상병리사 업무 교육에 따른 강사 및 시설 제공 △학생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 제공 및 취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해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김해대학교(총장 편금식)와 지난 10월 27일(수) 대학장 의관 화상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 체결 및

교환은 장인호 협회장과 고경희 부총장 간에 이루어졌다. 협회와 학교는 상호 간 협력체계를 수립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에 대한 현장 직무 교육 및 취업 활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마산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10월 27일(수) 마산대학교(총장 이학은) 본관 국제 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과 유필상 사업부회장, 마산대학교 이학은 총

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양 기관은 이 날 협약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과정과 학습교재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해전대학교 (총장 이혜숙)는 11월 4일(목)에 해전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해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세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식에는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과 임동욱 정무이사, 해전대 이혜숙 총장과 홍순관 교학처장, 김숙희 대외협력처장, 이동섭 학과장, 이인수 교수가 참석했다.

이혜숙 총장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선봉에서 노력하는 임상병리사협회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회

경기도의료기사연합회 간담회 개최

10월 21일 경기도방사선사협회 사무실에서 수원시의회와 경기도의료기사연합회 간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의료기사연합회는 임상병리사회 외 6개의 의료기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회장은 이광우 경기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이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수원시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업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협회 회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추후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회 제 6차 정기이사회 개최

광주광역시회(회장 서정훈)는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수문리조트에서 제 13대 임원진 수련회 및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여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안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서정훈 회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이번 임원진 수련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대면회의를 통해서 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밤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실화합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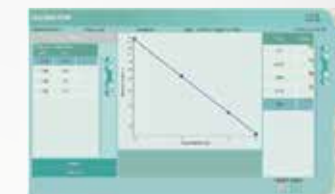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Pre-Calibration (프리-캘리브레이션)

Pre-Calibration 이란?

- '오직 Stago 에서만' 제공하는 마스터 커브 기능
- 바코드 시트 리딩하면 캘리브레이션 그래프 자동 생성
- Pre-calibration 검사 : PT, Fibrinogen, D-Dimer, Free PS



Save Your money!

Calibration 물질 필요 없음.



Save Your time!

Calibration 소요 시간 없음.



Keep Your data!

국제 표준 조건에 충족하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ISO9001:2008 - ISO13485:2003)



http://www.ssmedpia.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13, 1층 (역삼동 삼화빌딩) 에스에스메디피아
 홈페이지: mail@ssmedpia.com

Tel: 02-552-1951
 Fax: 02-552-1972



인천광역시회

인천광역시회 사랑의 쌀 나누기와 연탄 기부금 전달행사로 이웃사랑 전해



인천광역시회(회장 김한규)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기부금을 전달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해당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계 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천광역시회는 사랑의 연탄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행사에 동참하지 못하여 기부금 전달을 했으며, 개인으로 배달에 참여하는 것으로 행사의 아쉬움을 달랬으며 내년에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염원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11월 13일 추계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의 이번 추계대회 특별강연은 NDM-1 생성 세균의 내성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 하였고 항생제 내성과 감염병 진단의 권위자인 용동은교수(연세의대)가 '항균제 내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 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선 최근 세계적으로 감염증 증가추세에 있는 NTM(Non Tuberculous Mycobacteria)에 대해 김창기교수(서울의과대학연구소), 박정수교수(서울의대)의 강연이 있었다. 심포지엄 2에서는 김수정 회원(서울아산병원의) 'NG-Test CARBA-5를 이용한 카바페넴 내성유전자 생성 장내세균 신속 유전형별 검사', 이사란 회원(서울대병원의) 'dRAST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를 주제로 발표하여 여러 회원들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COVID-19로 위축될 줄 알았던 학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10년간 광주 2차병원의 호흡기검체에서 분리된 비 결핵 항산균의 폐질환 유병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백해경회원(광주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과 황색포도알균과 녹농균에 대한 유전전극 구조를 갖는 플라즈마 발생기의 멸균효과 평가라는 논문으로 박철, 이혁재회원(광주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또한 13대 학회장을 역임한 마산대학교 김충환 교수에게 공로패와 학회를 위해 수고한 회원들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제31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학술대회 초록집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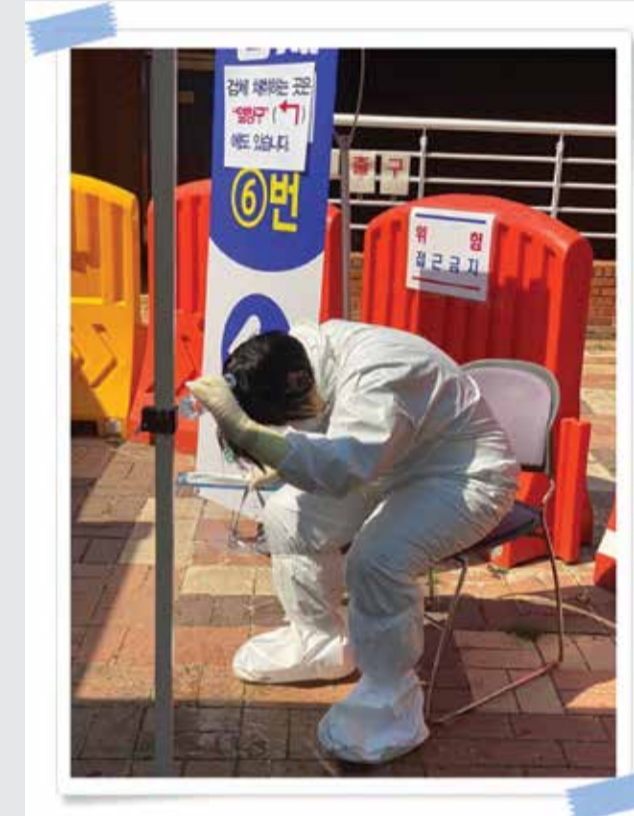
학회에서는 급변하는 진단검사의학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회원들과 소통과 학술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학술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코로나19 숨은 주역 임상병리사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사진공모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생생한 모습 사명감 돋보여



최우수상 '무더위와 사투'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강복만)가 주관하여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코로나19 숨은 주역 임상병리사 사진공모전'이 9월 30일 마감되었다. 약 2달간의 응모에서 총 170명의 회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의 노고가 담긴 사진을 응모해 주었다. 강복만 회장은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진 한 장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회원 대상 공모전은 주제의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황윤영(서울대학교병원) 회원이, 우수상은 이금지(구로성심병원) 회원과 이애린(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회원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황윤영 회원의 작품 제목은 '무더위와 사투'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 동료직원이 여름 무더위 속에서 머리에 물을 뿌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참여한 모든 작품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코로나 19 숨은 주역 임상병리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담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임상병리사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진을 찾아보세요



우수상 '우리 모두 화이팅!'



우수상 '선별진료소'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전공심화 모집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등록금납부
2021.12.30.(목) ~ 2022.01.12.(수) 24:00	2022.01.14.(금) 18:00	2022.02.08.(화) 14:00	2022.02.09.(수) ~ 2.11.(금) 16:00

원서접수 - 유웨이 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마감일 자정(24:00)이며, 토, 일, 공휴일 접수 가능함
- 모든 일정(합격자발표, 등록금납부 등)은 개인별 통지/발송하지 않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모집학과	무경력자	경력자	합계
임상병리학과	30	25	55

- 수업연한은 1년이며, 무경력자전형에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음

문의 : 031-249-6419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과 사무실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무경력자	관린학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6학기 11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산업체 경력은 필요하지 않음(산업체 경력있는 자도 지원 가능함)
경력자	① 관린학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6학기 11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 관련분야의 산업체 경력 1년 이상 있는 자(전문대학 전년도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자)는 9개월 이상) 가.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함 나. 관련분야의 산업체 재직경력 4년 이상(연속)이 아닌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임(현재 재직중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다. 관련분야 산업체 재직여부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심사함 라. 산업체 재직경력 근무기간 산정은 4대 보험 제출서류 발급일 까지 인정함

관린학과 및 관련분야의 산업체 재직경력 판단기준

모집학과	관린학과	관련분야의 산업체 재직경력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과	임상병리사, 세로병리사 등 유사직무

- 관련분야의 산업체 재직경력 판단기준은 해당 학과로 문의

전형별 제출서류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안내 전공심화 : <https://www.dongnam.ac.kr/psi/1564/subview.do> 참조



정호태(중앙대 신경과 검사실) 윤영철(중앙대) 김상윤(분당서울대) 성현호(동남보건대) 연구팀

정량뇌파 활용 주관적 인지 감소 연구 SCI 학술지 게재



정호태(중앙대 신경과 검사실)

정호태 임상병리사(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박사수료)는 중앙대학교병원 윤영철 교수(대한치매학회 연구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상윤 교수(대한치매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성현호 교수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주관적 인지 감소(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환자군과 건강한 지역사회 정상대조군과의 정량뇌파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규명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정호태 임상병리사는 고령 사회 진입과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건강증을 경험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가 치매의 주증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 인지 감소(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관적 인지 감소가 나타나는 환자와 지역사회 정상인 사이의 정량뇌파의 전력 스펙트럼 변화 차이를 비교 분석해 향후 초기 감별 진단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데 가치 있는 연구 결과로 특히, 주관적 인지 감소 대상자의 진단 및 기준에 대한 최적의 접근법이 없는 현실에서 정량뇌파검사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 결과물로 두 대상자간

의 전기 생리학적 특성을 이해하면 저렴한 비용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선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군 분석결과 주관적 인지 감소 대상자와 지역사회 정상 대조군과의 정량뇌파의 전력 스펙트럼 변화가 확인됐다. 전두엽 영역에서 느린 파동인 델타파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후두부 영역에서 빠른 파동인 알파1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인지 감소는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의 연장선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미한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주관적 인지 감소가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초기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관적 인지 감소에서 정량뇌파의 전력 스펙트럼 변화(Power Spectral Changes of Quantitative EEG in th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Comparison of Community Normal Control Groups) 연구는 영국에서 출간되는 세계적인 학술지 신경 정신 질환 및 치료(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2021년 17호에 게재됐다.



Lipoprint® System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Subfraction을 확인하지 않으면, 병산의 일각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해결책
Lipoprint® LDL Subfraction 검사

Lipoprint®는 저단백질의 모든 하위 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결과 항목]

- VLDL
- LDL Particle Size
- IDL 1~3
- Total LDL Cholesterol
- Large LDL : LDL 1, 2
- Total Cholesterol
- Small dense LDL : LDL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현대저식산업센터 A동 3층
Tel. 02-477-5916 Fax. 02-477-5917

봄메디칼

특별기획연재(2021년 12월호)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현황 ④ (오세아니아, 아시아)

구본경 임상혈액검사학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배경

▶ 2021년 병리협보 9월호부터 "Position of Laboratory Scientist, Analyst, and Technologist i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국제의생명검사과학회지 2021년 10권(2호) 75-85면 게재 논문을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 회원국의 나라별 임상병리사 명칭,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직업 상황 이동 방안 등을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 오세아니아 국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명칭

▶ 15개 오세아니아 국가 중에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에 가입한 회원국은 1개국으로 호주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표준직업분류(AZSCO)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대분류의 Medical Laboratory Scientist와 준전문가 대분류의 Medical Laboratory Assistant가 있다.

Job title	
호주	P: 2346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P: 311213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뉴질랜드	P: 2346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P: 311213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 아시아 국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명칭

▶ 47개 아시아 국가 중에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에 가입한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중국); 동남아시아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남아시아는 인도, 스리랑카이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는 없다.

▶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KSCO 2017)"에서 임상병리사를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일본 임상검사기사는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대만 의사(事)검험기사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중국_홍콩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필리핀 Medical Technologist; 말레이시아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싱가포르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미얀마

Medical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인도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스리랑카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이다.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 임상병리사 공식 명칭은 Medical Technologist이지만 정부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나 국제노동기구의 표준직업분류에서는 Medical Technologists와 Medical Technicians은 의료기사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Job title	
한국	P: N/A AP: 2451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임상병리사>
일본	P: N/A AP: 143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임상검사기사>
대만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의사검험사>
중국_홍콩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의무화험사>
중국	AP: 20507-04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임상의학검험기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임상의학검험기사)
필리핀	P: N/A AP: 2227 Medical Technologist
태국	P: N/A AP: 3212 Medical Technologist
말레이시아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싱가포르	P: 2134-02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ex: Epidemiologist)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미얀마	P: N/A AP: 3212 Medical Technologist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파키스탄	P: N/A AP: 3212 Medical Technologist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인도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스리랑카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사우디아라비아	P: 213115-06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P: 321201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WeConnectScience

108 Allergen

LG Chem

Max Allergen & Max Capacity

단 한번의 검사로 Max108

국내 최초 개발 알러지 진단 시약 AdvanSure™ AlloScreen

국내최다 108종 알레르겐에 대한 결과 동시 확인

동네의원도 코로나 진단·치료 준비... '위드 코로나' 방안 코로나19 외래진료, 1차 의료 중심 전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네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해 동네의원 역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중장기 추진방향을 밝히며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경우를 단서로 달았는데 공공병원 부담을 70%에서 50%까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입원·외래진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과학을 아시나요"... 대구보건대, 신산업 특강

최선영 교수, 맞춤형 진단검사 전문가 양성 목표



대구보건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11월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재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의료기기 업계의 꽃 RA(의료기기 규제과학)를 아시나요?'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스마트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 교과목 개설에 따라 재학생들에게 신산업 특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문지상 교육기획팀장은 취업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RA 교육 및 자격증 등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헬스케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와 의료기기 산업의 동향을 설명하며 신산업 특화 교육과정을 통한 다양한 취업과 진로를 제시해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 설계·개발부터 의료기기 전(全)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 기준에 근거해 국내외 적합성 인정(GMP), 인허가, 임상지원과 시판 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수출입에 필요한 의사소통 등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가이다.

행사를 주관한 최선영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임상병리과 교수)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보건·의료·헬스케어산업 시장의 확대에 신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임상검사기술을 선도할 임상병리사 양성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맞춤형 진단검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신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진단, 주요 변이 분류 후 변이 PCR검사법 개발" 시약 제조사에 정보 공개...전문가 TF 구축

오미크론이란, 2021년 11월 9일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로 11월 26일 세계 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였고 WHO에 의해 '우려 변이'로 지정되었으며 그리스 알파벳 15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큰 우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를 델타 보다 2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전염력이 5배에 달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32개가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류체계는 B.1.1.529이다. 오미크론은 16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그 수가 2배에 달해 훨씬 더 강력히 인체 세포에 흡착해 증상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 민간 진단시약 제조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분석에 필요한 중합효소 연쇄반응(유전자 증폭-PCR) 검사법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보급까지 몇 주 걸릴 전망이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검사분석팀장은 12월 1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오미크론이 주요 변이(VOC-Variants of Concern)로 분류된 후 오미크론을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변이 PCR 검사법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변이 PCR 검사법은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PCR 진단 검사와 다르다.

변이 PCR 검사법은 일단 양성 판정된 검체를 대상으로 주요 변이 부위인 스파이크(S) 유전자를 증폭해 하루 안에 변이 여부를 확인한다. 3만여개에 달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을 일일이 보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과 달리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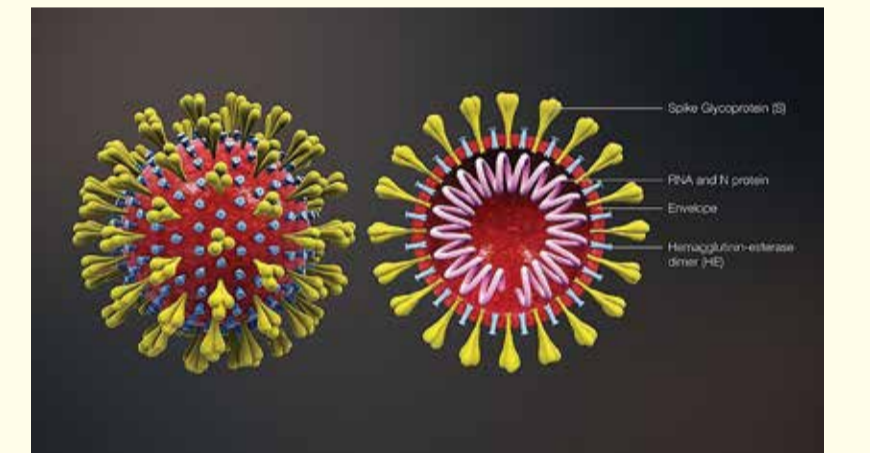
단, 변이 PCR 검사법은 특이 변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약이 개발돼야 한다. 현재 주요 변이인 알파·베타·감마·델타 변이를 감지하는 PCR 시약이 개발돼 활용 중이지만,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지 시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전날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돼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방역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김 팀장은 "오미크론이 주요 변이로 분류되자마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염기서열을 분석해 특이적인 사이트(변이 부위) 솔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며 "기존 변이 PCR 시약 제조사를 대상으로 변이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게 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민간 제조사들이 변이 PCR 시약 개발에 착수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시약개발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TF는 시약 개발, 기술 자문, 확정 참조 물질을 공유하는 등 변이 PCR 검사법 개발을 지원하며 실제 사용까지 몇 주 더 걸릴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김 팀장은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얼마나 정확하게 오미크론을 검출하는지 유효성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며 "유효성 평가까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주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주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365일 운영' 코로나19 출국자 검사센터 오픈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시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10월 27일 본원(서울)·부산 경남검사센터·대구경북검사센터·광주호남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출국자 검사센터'(이하 출국자 검사센터)를 오픈하고, 해외 출국 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국자 검사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 없이 연중무휴 운영한다. 단, 서울본원은 직장인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검사 결과는 4~5시간 내에 예정된 시간에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전달된다. 검사 후에는 수검자가 결과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이용 예약은 출국자 검사센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https://direct.seegenmedical.com/main_kor/) 또는 고객 콜센터(1533-1500)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완료 후, 지정된 검사센터에 방문해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된다.

2021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 | |
|---|--|
| 1) 접수기간 : 2021년 12월 20일(월) 18:00까지 전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제466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집 먼지 알레르기 유발 새 알레르겐(항원)발견'

● **김민자 회원**: 집먼지 알레르겐만 해도 이미 37종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새로운 알레르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진단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계속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임상병리사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특허'

● **김정희 회원**: 임상병리사로서 발명 특허를 내는 노하우라든지 출간한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고 내용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항상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임상병리사 회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간: 매일 20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회원동정

- △ 송정원 임상병리사(노원을지대학교병원 병리과), 20년 근속상 수상
- △ 이광우 경기도회장(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충청남도회

- 정장수님 공주의료원 공로연수
- 김예은님 공주의료원 신규입사
- 논산백제병원 이소라, 서유림님 책임병리사 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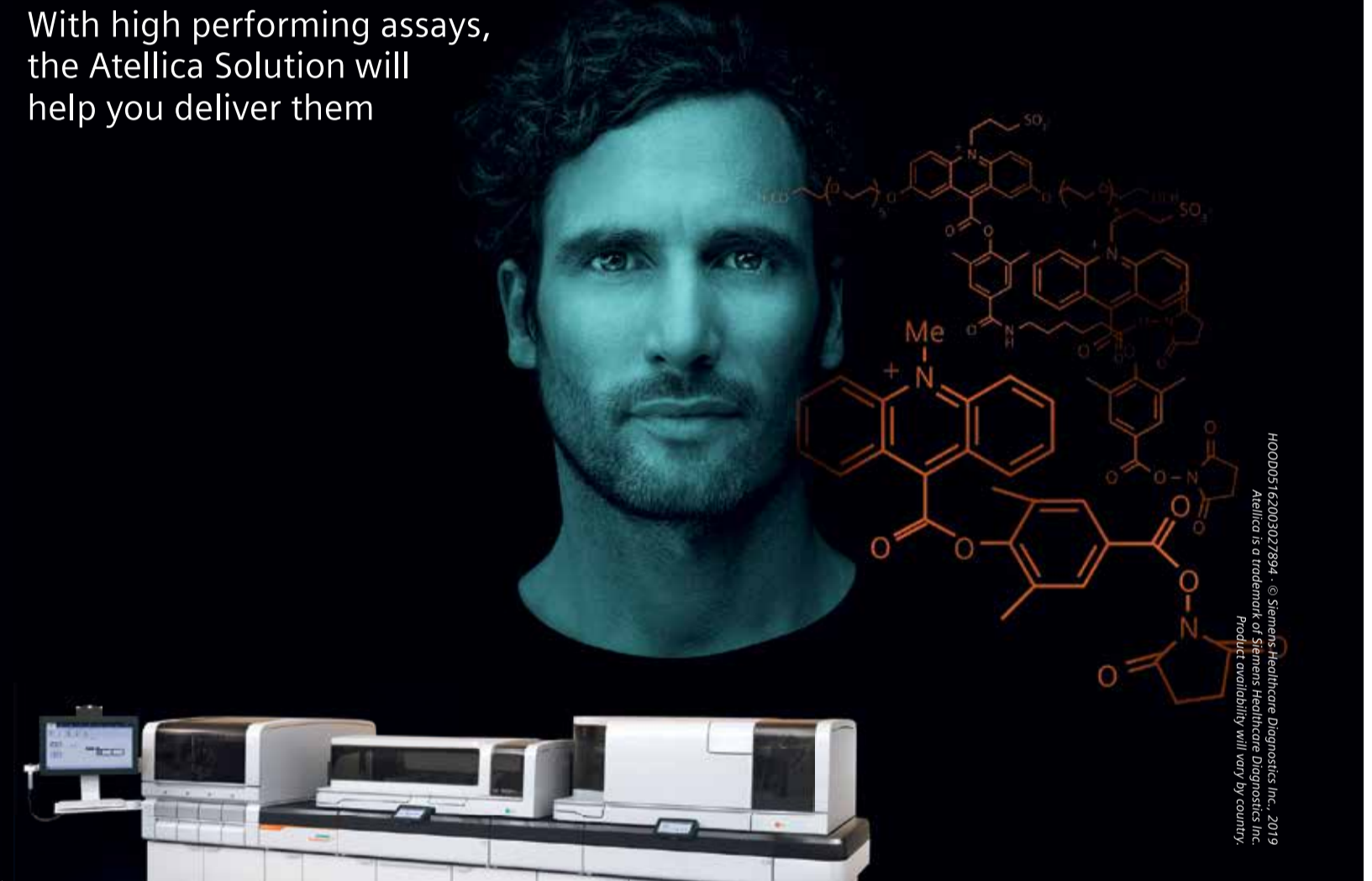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에
벡크만쿨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벡크만쿨터의 최신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atients are counting on your results

With high performing assays, the Atellica Solution will help you deliver them



Powered by Atellica® Solution

The Atellica Solution offers a broad, growing menu of chemistry and immunoassays—from a true High-Sensitivity Troponin I assay to a robust thyroid menu.

See our comprehensive menu or ask your sales representative for more information.

With revolutionary sample management, the Atellica Solution provides the diagnostics patients need with the turnaround time clinicians require.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 K-방역 최일선



❖ AI(인공지능) 등 최신키술 도입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 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 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 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리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